목어

'無有 恐怖'

'나는 벌 같은 존재일까? 파리 같은 존재일까? 광수생각'

며칠 전 한 일간신문 한 컷 만화에 실린 글로, 우리에게 '공포감'을 한번 생각케 해 준다. 방안에 들어 온 벌 한 마리를 보고 공포에 질려 온갖 살충제를 뿌려 그 벌을 죽였는데 '침을 지니지 않은 파리를 보고도 이랬을까?'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파리라면 성가시긴 하겠지만 살의까지는 느끼지 않는다. 벌이라 해서 반드시 침으로 사람을 찌르지는 않을 것인데…. 하지만 바로 그 무기, 그 침이 상대의 살의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모든 살의의 저변에는 이 같은 상대에 대한 공포가 있다.

심리학에선 태생적 공포감은 없다 한다. 갓난 아기는 호랑이나 불 죽음 등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는 학습된 것이며 이 같은 공포감은 한편 '위험을 경고해 주는 생존의 필수적 방어체계'의 하나가 된다. 우리 뇌의 뇌편도(Amygdala)가 그 학습된 공포를 조절한다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공포는 테러다. 미국에 대한 자살 비행기 테러, 탄저병 등 생화학 테러는 그야말로 지금 미국을 '떨게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무지하게 쏟아지고 있는 폭탄과 미사일은 파리 아닌 벌에게 마구 살충제를 뿌려대는 심리 저변과 같은 공포의 반사작용일 것이다.

학습된 공포가 비록 생존의 필수적인 방어체계라 하더라도 또한 통어되고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불경은 가르치고 있다. 반야심경의 '무유공포'가 그것이다. 반야심경 수지독송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덕은 '공포가 없어지는 경지'가 아닌가. 그러면 왜 불경은 공포를 극복하라 하는가. 공포는 한편으로 탐진치의 튼튼한 방어체계일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21세기의 평화는 '공포'를 연구하고 '공포'를 극복하는 지혜를 터득해 나감으로써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김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호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창종정신 되살려 생활불교 확산"

인터뷰 진각종 제9대 총인 혜일 종사

19일 만장일치로 불교진각종 제9대 총인에 추대된 혜일(慧一) 종사는 지난 59년 진각종에 입문한 이후 하루 8시간 이상 정진을 계속해 오고 있다. 또 통리원장과 종의회 의장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치는 등 종조 회당대종사의 법통과 수행가풍을 그대로 이은 원로스승으로 종단내외에서 폭넓게 존경을 받아왔다. 다음은 23일 오후, 주석하고 있는 강남 행원심인당에서 혜일 총인과 가진 기자회견 내용이다.

◆총인께서는 종조 회당대종사를 가장 가깝게 모셨던 제자 중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이 회당대종사의 탄생 1백주년으로 많은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창교정신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요?

"종조의 창교 이념은 '밀교중흥, 생활불교, 현세정화, 심인(心印)현현'입니다. 이 창교이념을 구심점 삼아 밀교의 가르침을 전하며 현세정화를 실천해 가야지요. 오늘날 인류는 급속한 과학문명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한편 정신적인 빈곤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빈곤현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가득차 사회적인 병폐가 심각해지고 갈등과 불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종조께서 가르치신대로 '현세정화 광제중생'을 충실히 해 나가면 됩니다.

창종 당시는 회당종조의 가르침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또 실천, 확산이 되었으며 이러한 기운이 정치와 사회에도 영향력을 주어 재건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었습니다.

또 당시는 진각종이 자성일마다 정기적으로 법회를 열고 불법을 전파하여 다른 종단에서도 그러한 방법과 원력을 배워갔습니다. 따라서 진각종의 발전이 곧 불교의 발전이 되었지요. 현재도 이러한 의식과 방향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조 탄생100주년을 맞아 벌이는 각종 기념행사는 모두, 불법을 우리 사회에 확신시키자는 의미에서, 현재의 모든 것을 재조명하여 힘찬 도약을 재다짐하자는 불사입니다. 전 불자들이 동참하는 의미깊은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각종 현안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요?

"교법의 구체적이고도 확고한 체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밀교수행의 명확한 체계를 세워 놓으면 일반인들도 쉽게 받아들여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종단 내부적으로 축적된 힘이 바깥으로 확산돼, 정치 경제 사회 등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국민들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요익중생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표방하고 있는 진각종의 교리를 널리 펴야 할 사명감이 있습니다. 수행은 실천입니다. 요즘 진각종이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 복지 사업이 그러한 실천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종단의 제2도약을 위해서는 교직자들이 뜻을 모아 문제점을 극복하고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조께서는 망어를 경계하셨고 행동의 진실과 마음의 진실을 강조하셨지요. 이를 삼밀수행이라고 하는데 불자라면 이 세가지를 늘 경책하며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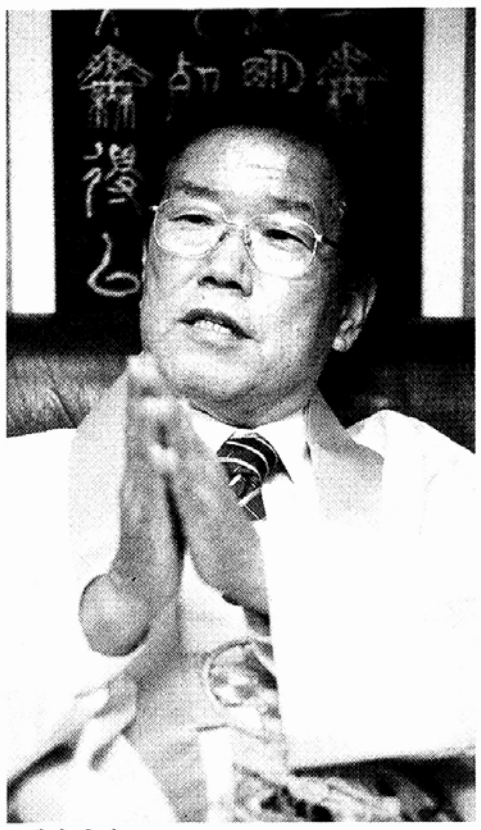
"요새 우리 나라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지난날 분수에 넘친 행동을 한 자업자득이지요. 누구 탓을 하거나 사회 탓을 할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하는 자성분위기면 화합이 되고 극복이 됩니다."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새벽 3시 30분이면 일어나 2~3시간동안 개명신공을 드리고 낮과 저녁에도 정진을 합니다. '처처불공, 시시불공'의 마음으로 수행하지요."

이경숙 기자

"밀교 수행체계 구체적 정립"
"교육 · 복지불사로 사회 회향"



혜일 총인은 1934년 2월 경주 生으로 지난 59년 진각종에 입문, 65년 학교법인 위덕학사(회당학원 전신) 감사를, 68년 제3대 종의회 사무처장, 76년 종의회 의원을 지냈다. 밀각심인당, 탑주심인당, 행원심인당 주교를 지냈고 통리원 기획부장, 총무부장과 제15, 18, 19, 22대 통리원장을 역임했다. 87년에는 4성지건립추진위원, 94년 종사에 품수됐으며 지난 95년에 9대 종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97년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 2000년 인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불교학술 가을행사 '풍성'

주제 다양 … 불교학 지평 넓어질 듯

올 가을 불교학자들은 책상에 앉아 있을 틈이 없다. 예년에 비해 불교학 관련 학술 세미나가 눈에 띄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 참조)

달마다 정기 학술발표회를 갖는 보조사상연구원, 불교학연구회, 한국선학회 외에도 학술 단체들의 정기 학술대회, 지역문화와 불교, 현대 사회문제와 불교 등 주제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이 같이 양적으로 늘어난 학술세미나는 불교학 발전의 지평을 넓힐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갖게 한다. 반면 불교학 연구인력이 한정된 현실에서 학술 세미나의 홍수가 오히려 논문의 완성도를 떨어뜨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2001년 11월 불교 학술 세미나 일정

단 체	주 제	날 짜	장 소	연 락 처
오대산 월정사	치악산의 불교문화	11월 8일	원주 구룡사	(33)732-4800
불교어문학회	불교문학과 경주	11월 10일	경주 기림사	(054)770-2119
불교학연구회	가을학술발표회	11월 10~11일	안동 국악진흥원	(02)2260-3128
현대불교사회문화원	사회복지정책에서 차별과 배제	11월 15일	동 문화원교육실	(02)736-6940
회당학회	진각논문 대상 논문발표회	11월 15일	진각종 교육원	(02)913-0133
천태불교문화연구원	대각국사 의천과 동아시아불교	11월 16일	관문사 옥불보전	(02)3460-5321
한국선학회	정기월례발표회	11월 17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02)2260-3135
한국불교문화원	추계학술대회	11월 17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02)2260-3121
불교포럼	타종교와의 대화	11월 28일	동산불교회관	(02)725-4282
보조사상연구원	구산장학회 발표회	11월 24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02)733-5315
불교문화연구원	신라불교와 장보고	11월 27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	(02)2260-8507
인도철학회	정기학술발표회	12월 초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02)2260-3123

폐원 위기 놓인 승가대 보육교육원

환경 열악 · 홍보 부족 '원인'

학교 · 종단 대책세워야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이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한 데에는 학교 측의 책임이 크다. 운영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교육생 감소는 홍보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 방치, 행정적 관리 부실에서 기인했다.

단적으로 20년이 넘은 건물에, 비좁은 강의실과 노후된 기자재로는 신입생 감소를 부추길 수밖에 없었다. 또 보육교사교육원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실장이 99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7차례나 바뀌었으니, 제대로 운영될 리 만무했다. 책임자가 자주 바뀌다보니 신입생 선발에 따른 홍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곳 졸업생들로부터 "보육교사교육원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그러다보니 서울시내 30여 곳에 이르는 다른 대학의 보육교사교육원에 비해 경쟁력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신입생 감소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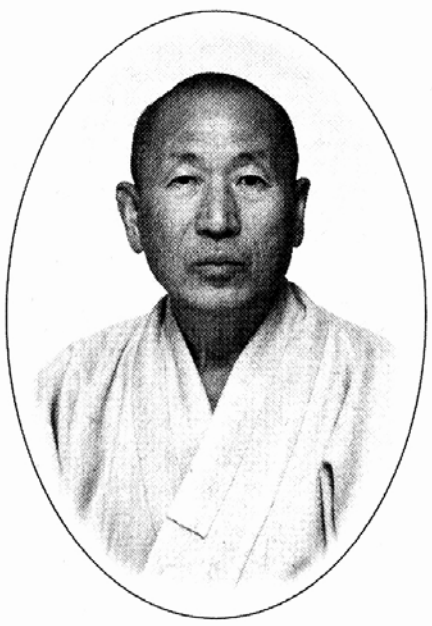
문제는 정상화 여부인데,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번 재학생이 졸업하는 2월까지 최소한 4천여만원이 더 필요하나 조달할 방법이 없다. 학교법인 이사장 정대 스님이 학교 발전기금의 일부를 특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쾌한 의사표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이전 문제도 다음달 초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모집요강을 확정해 홍보하는데도 무리가 따를 것이 분명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교계 일각에서는 단순히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립 운영에 필요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과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육교사교육원이나 중앙승가대, 총무원 측은 이에 공감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보육교사교육원은 상당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奉 보덕선원 밀운대선사 조실 취임 대법회 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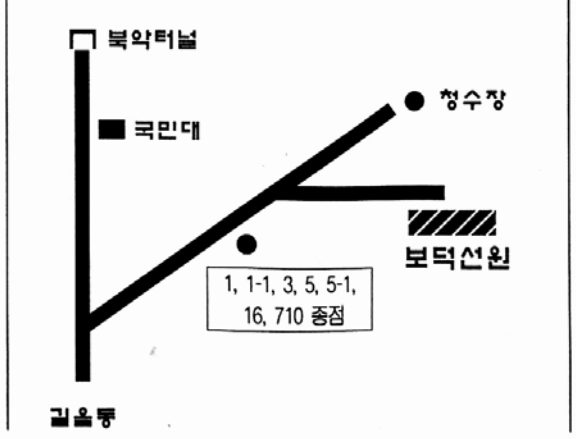
밀운 큰스님을 모시고 동안거결제에 들어갑니다



밀운대선사

일 시 : 불기 2545년 (2001년)
11월 15일 (음력 10월 1일) 10시
장 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 4동 824-1호
삼각산 보덕선원 대법당
문의처 : 보덕선원 02-914-4235

■ 교통안내
ㅁ 지 하 철 : 4호선 성신여대 입구 하차
→ 일반버스 (하단) 탑승 종점 하차
ㅁ 일반버스 : 1, 1-1, 3, 5, 5-1, 16, 710 종점 하차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 대 각 회
삼각산 보덕선원 선원장 오본 합장

찾아 오시는 길